

2021년 3월 28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3편 6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편 13편 6절)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150장(통135) 갈보리산 위에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다니엘 3장 1~12절(구약p.1235)

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2.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3.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4.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6.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7.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8. 그 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9.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10.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11.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 ◎ 말씀선포 / 우상숭배와 성도

복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피를 뿌리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 하는 역사가 이어졌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며 종려주일로, 그리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막힘 담을 허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성도는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1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고 했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는 배도의 강요를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순교로 저항했던 순교자들을 본받아 오늘날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 1. 우상숭배를 강요합니다.

-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모든 백성이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는 여섯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또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앞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느부갓네살왕은 자신이 만든 우상 앞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 나라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 함께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그들이 원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부정하고, 오직 자신이 만든 우상 앞에 하나가 되어 경배하게 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의 낙성식 때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신과 신상 앞에 앞드리게 함으로 왕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 만일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며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역사상 많은 독재자들이 무력으로 성도의 신앙을 박해하며 우상 숭배하기를 강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이방인의 침입으로 점령당하거나 성도들이 무력으로 배도를 강요받았을 때, 무릎을 꿇었던 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대다수의 성도와 교회는 일제의 강요에 무릎을 꿇어 신사참배에 동참했지만 일부 성도들은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시대를 초월하여 무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그러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 2. 하나님만 섬기는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 바벨론에 거하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은 다신론을 따랐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왕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다의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 숭배에 결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신 명령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계명에 따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하라고 명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왕에게 은혜를 입어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느부갓네살왕에게 고발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할 때 곳곳하게 서 있으면 분명히 눈에 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차마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 권력자의 명령이 배치될 때 순교를 각오하라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여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결단코 사탄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러한 물리적인 핍박이나 우상숭배의 강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여전히 삶의 우상을 만들고, 마음의 우상을 만들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만을 원할 뿐 그분의 간섭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뜻, 나의 목표, 나의 삶이 중요하기에 자기 스스로 나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하여 세상의 방법과 뜻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도 때로는 자녀도, 물질도, 우리의 사상도, 신념도,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다 앞서며 인생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성도는 무력이 아니더라도 돈의 위력 앞에 굴복시키려는 사탄의 간계로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고 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돈을 숭배함으로 온갖 범죄를 저지릅니다. 성도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명심하여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내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오직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을 뜻을 따르며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고난 주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14장(통51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 폐 회 / 주기도문